

# 국토교통부, 여름철 재난예방에 모든 역량 집중

## - 10일 재난예방 점검회의 후 도로시설물 현장 찾아 안전관리 철저 당부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6월 10일 오후 국가교통정보센터(정부세종청사)에서 여름철 재난예방을 위한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후 도로 비탈면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.

○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도로관리기관\*의 풍수해, 폭염 등 여름철 재난 준비상황을 보고받은 후 “올해는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가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, 다시 한번 여름철 취약현장에 대해 점검하고 보완하는 등 실천력을 제고 할 것”을 강조하였다.

\* 5개 지방청장, 국토관리사무소장(수원, 홍천, 논산, 광주, 대구, 진주), 한국도로공사 등

○ 또한, “관리소홀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직원의 책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”고 하면서, “각 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여름철 재난 준비상황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직접 관리하고, 지방청-국토관리사무소 및 도로공사 본사-지사 간 팀웍을 구축할 것”을 지시하였다.

□ 이어서, 공주시 계룡면 봉명1리 소재 국도 23호선 비탈면 현장(길이 300m, 높이 30m)을 직접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. 해당 비탈면은 붕괴신호를 감지하기 위한 사물인터넷(IoT)\*이 설치된 곳이다.

\* 비탈면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줌으로써, 적절한 사전 조치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

○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“비탈면은 주기적인 점검·보수 외에도 IoT를 통해 붕괴 징후가 보일 시에는 선제적으로 교통 통제하는 등 적극적인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고 말하며,

○ “이를 위해, 경찰청,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모의훈련하는 등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출 것”을 당부하였다.

2024. 6. 10.

국토교통부 대변인

# 참고

## 비탈면 사물인터넷(IoT) 모니터링 시스템

### □ 비탈면 IoT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

< 비탈면 모니터링 시스템 예시 (통신방식)>



< 비탈면 계측시스템 구성 예시 > ※대용량 파일 별첨



### ※ 시스템 구축 현황 및 계획

연도	계	'20	'21	'22	'23	'24	'25(예정)
개소수(개)	502	10	60	130	102	100	100
사업비(억원)	1,500	30	180	390	300	300	300